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2월 11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국채 수익률 6일 연속 상승세
- 2) 12월 도매재고 0.1% 증가, 예상하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브라질 헤알화 가치, 10년래 최저 수준
- 2) 금값, 9달러 이상 하락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애플, 세계최초로 시총 '7000억 달러' 돌파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국채 수익률 6일 연속 상승세

- 지난 10일 트레이드웍은 미 국채 3년물 수익률은 0.3bp 오른 1.019%를 기록하여 미 국채 수익률은 6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
 -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 때 2%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다소 진정세를 찾으며 2.8bp 오른 1.976%로 거래를 마쳤으며, 30년물 역시 4.1bp 상승한 2.561%를 나타냄
-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지표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, 또한 그리스 사태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
- 반면, 대규모 채권발행이 지속되어져 국채 가격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짐
- 한편, 미 정부는 이번 주에만 총 6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

2) 12월 도매재고 0.1% 증가, 예상하회

- 지난 1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도매재고는 전월대비 0.1%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여짐
 -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.2%와 11월의 0.8%를 하회하는 결과이며, 17개월래 가장 저조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짐
- 일부 전문가들은 도매재고 증가폭 감소가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
 - 이는 기업이 수요 둔화에 맞춰 재고를 줄였다는 해석
- 반면,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강세와 저유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향후 도매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브라질 헤알화 가치, 10년래 최저 수준

-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원자재 가격 하락세에 브라질 성장 전망이 악화되면서 헤알화 가치가 폭락했다고 보도
- 이날 헤알화 가치는 전장대비 2.12% 하락한 달러당 2.8324헤알을 기록한 바 있음
 - 이는 지난 2004년 11월 1일 2.854헤알화 이후 최저수준이며, 헤알화는 이미 지난해 달러화 대비 13% 가량 가치가 하락하기도 함
- 또한, 브라질 일간지 폴라 데 상 파울로에서 브라질 정부의 실업보험 축소 방안에 노동조합들이 맞서 싸우면서 정부의 긴축 정책이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다고 보도한 것도 헤알화 가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남
 -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한 브라질 회복세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더 큰 위협을 받으면서 헤알화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언급
- 이외에도, 커지는 경기침체 전망, 물가상승 압력 고조 등이 헤알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
-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브라질 경제가 제로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, 물가상승률은 7.15% 급등할 것으로 예상
 -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물가상승률 안정 범위는 2.5%에서 6.5%임

2) 국제금값, 9달러 이상 하락

- 지난 1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9.3달러 하락한 1232.20달러를 기록했으며, 3월 인도분 은 가격 역시 20센트 떨어진 온스당 16.87달러에 거래됨
- 이날 금값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기록
 -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와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
- 한편, 이는 전날 중국 교역량이 예상보다 하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애플, 세계최초로 시총 '7000억 달러' 돌파

- 지난 10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주당 122.02달러를 기록하여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
 - 이로 인하여, 다른 기업들과의 시총 격차도 크게 벌어졌으며, 시장조사업체 팩셋에 따르면 애플에 이어 2위인 엑손 모빌의 시총은 3850억 달러며, 그 뒤를 3700억 달러의 버크셔해서웨이, 349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차지하고 있음
- 애플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며, 지난 4/4분기 애플의 매출은 746억 달러, 순익은 18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%, 38% 씩 급증

-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적은 아이폰의 급증한 판매세가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, 캐너코드제뉴이티에 따르면 작년 4/4분기 스마트폰시장의 총 영업이익은 210억 달러이지만, 이중 애플은 93%에 해당하는 194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창출
- o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의 주가 상승세는 향후 더 증가 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